



톡톡

# 부산체육

April 2020 VOL. 02

## 사람과 사람 ①

소통 · 화합 · 클린  
키워드로  
제2의 부산발  
축구붐

부산시축구협회  
최철수 회장



## 사람과 사람 ②

설원 달리는 빛나는 너  
스키는 나의 힘!  
스키는 내 운명!

알파인 스키 꿈나무  
대표선수를 꿈꾸다  
최범근 선수



## 부산체육의 발자취

사직벌에 올려 퍼진  
오! 필승 코리아

다시 보는 부산체육 50년



## 스포츠 톡

국제 탁구계의  
메가 이벤트를 기다리며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 교육톡

01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02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 비리 신고하기



## 건강과 사람



## 사람과 사람 ①



# 소통 · 화합 · 클린 키워드로

## 제2의 부산발 축구붐

 부산시축구협회 최철수 회장

유년시절부터 축구에 재능과 열정이 남달랐던 그다. 13년간 모교 축구회 후원회장에 이어 2017년부터 부산시축구협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부산 축구 발전에 힘을 보태온 그가 지난 1월 17일(금)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축구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순수한 열망에서 시작한 축구와의 특별한 인연을 47년째 이어온 최철수 회장, 집무실을 찾았을 때 ‘도광양晦(韜光養晦)’라고 쓰인 현판이 눈길을 끌었다. 재능,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다.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글귀를 보며 숨을 고른다는 최 회장, 그가 들려주는 부산 축구의 청사진에 주목한다.

### 세심하게 지켜야 할 약속, 자금과 운영의 투명성

경남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창단 멤버이자 주전으로 활약한 최철수 회장의 꿈은 축구선수였다. 빠듯한 집안 형편에 재능만으로 축구선수를 꿈꾸기엔 냉정한 현실, 일찌감치 사회인이 된 최 회장은 1991년 창립 멤버 5명과 아진일레트론을 창업한다.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모교 축구부부터 찾았다. 경남공업고등학교 축구부 후원회장을 맡은 지 벌써 13년째, 후배들이 맘껏 축구를 즐기며 꿈을 이뤄가길 바란 최 회장, 부산시축구협회와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부산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이 절실했어요. 축구협회 소속이 돼 보니 부산 축구의 열악한 현실이 확연히 보이더군요. 내가 결정권자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시도는 어땠을까 등 그동안 생각이 많았지요. 부산시축구협회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협회 회장까지 맡은 걸 보면 내 인생의 동력은 축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선거 출마로 전임 회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였다.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터라 최철수 회장의 임기는 10개월. 마음은 급하지만 서두르진 않겠다고. 그간 놓치고 있던 일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생각이다. 오해나 갈등은 사소한 데서 비롯된다. 수십 년 사업을 운영하거나 단체를 이끌면서 느낀 경험을 보면 그랬다. 애초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는 취임하자마자 운영과 자금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을 발 빠르게 진행했다.



### 부산 축구 발전 이를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

“뭐니 뭐니 해도 부산 축구인들의 염원이자 숙원은 축구 전용구장 건립이겠죠.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은 상황이에요.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한 목소리를 내는 부산 시민들의 간절함이 크니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석과 검토 작업을 거쳐 흑자를 내는 전용구장을 만들어야죠.”

부산시축구협회 회원 중 대다수는 생활체육인으로 이들에게 절실한 건 저렴하게 상시로 이용 가능한 축구장이다. 최 회장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축구장 확보에 더 골몰했던 이유다. 최 회장은 인수위원들과 축구시설 현황 지도를 그리는 중이다. 기장군에 월드컵빌리지와 대저1동에 강서체육공원 등 지역 내 축구시설을 살피고 있다. 발품을 팔아 현장을 찾아다니며 답을 찾는 그다. 부산FC축구단이 운영 중인 멘티와 멘토 운동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축구에서 삶의 통찰을 얻는다는 최철수 회장, 가슴 속에 품어온 협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 짧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묵심 있게 밀어붙일 요량이다. 먼 곳을 내다보고 지금 주어진 일을 묵묵히 이행하는 추진력, 충분히 많은 의견을 수렴하되 밀고 나갈 때는 목표 지점만 바라보는 맹렬한 실천력에 가속도가 붙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갈고닦은 최철수 회장, 그가 펼칠 소통, 화합, 클린 행정 기대되는 이유다.



## 사람과 사람 ②



# 설원 달리는 빛나는 너 스키는 나의 힘! 스키는 내 운명!

### 알파인 스키 꿈나무 대표선수를 꿈꾸다

최범근 선수

네 살 때 가족끼리 놀러 간 스키장에서 처음 스키를 접했다. 레슨을 시작한 건 다섯 살, 한 달 일정의 스키 캠프에 참여한 건 여섯 살 무렵이다. 3박 4일 실컷 스키장에서 놀다가 집에 갈 무렵이면 자기는 놔두고 가라며 떼를 썼던 아이는 이제 열두 살, 알파인 스키 대표 유망주로 손꼽히는 최범근 선수다. 여느 또래들처럼 게임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5학년, 천진난만하고 장난기 가득한 표정인데 스키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진다. 확고하고 진지하다. 최범근 선수에게 숙명처럼 다가온 스키 얘기가 무르익는다.

### 스키 유망주,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능 남달라

“범근이는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와 스키 강습을 받았어요. 아이가 균형 감각이 남다르단 얘길 자주 들었죠. 좋아하고 잘하니 부모로서 지원해주고 싶더군요. 아이가 어릴 땐 가까운 전북 무주스키장을 갔고 선수 생각을 한 후로는 강원도 용평스키장을 찾았어요. 거긴 봄까지 스키장에 눈이 있었거든요. 12월 초부터 3월까지 내내 스키만 탔죠. 여덟 살에 범근이가 그토록 바랐던 선수 등록을 했고요.”

부산시스키협회 윤설호 총감독은 “최 선수는 부산 스키계에서 모처럼 눈에 띄는 두각을 나타낸 선수예요. 올해 4학년으로 참가한 동계체육대회에서 자신보다 큰 체구의 고학년 선수들을 이기며 은메달 2개를 획득해 모두를 놀라게 했죠. 다음 제102회 동계체육대회에서는 다관왕을 예상할 정도로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키는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4년 연속 종합 5위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종목이다. 눈이 오지 않고 훈련장이 없는 부산에서 스키 종목이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이유는 부산시장배, 교육감배대회에서 발굴한 꿈나무 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육성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 알파인 스키를 향한 확고한 목표는 삶의 원동력

눈이 오지 않는 비시즌에는 자세 훈련이나 트레이닝 운동 등 지상훈련을 주로 한다. 여러 가지 재밌는 운동을 겸하는데 복싱, 플라잉요가로 몸 만들기에 집중한다. 6월에서 8월은 전지훈련 시즌, 만년설이 있는 외국으로 간다. 그리고 12월부터 3월까지 국내에서 스키를 탄다. 작년 가을에는 경기도 포천에 생긴 잔디스키장을 주말마다 갔다. 얼추 따져 보니 작년 6개월가량 스키를 탄 셈이다.

“2학년 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나갔는데 시합 직전에 연습하다 넘어져서 스키 날에 손이 찢어졌어요. 눈발에 피가 많이 묻어서 놀라긴 했죠. 같은 팀 누나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로 내려왔어요. 감독님이 아무래도 시합을 뛰기 힘들겠다고 하셔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경기만 뛰게 해 달라고 울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 같아요. 서둘러 병원에 가서 여섯 바늘을 꿰매고 간신히 초등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뛰었는데 1, 2학년부에서 1등을 했어요. 부상을 당하고 보니 오기랄까, 더 잘하고 싶었죠. 그런데 1등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잊지 못할 그날을 회상하는 최 선수의 단기 목표는 올해 꿈나무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다. 5학년 때부터 선발에 참여할 수 있어 올해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알파인 스키의 자존심이자 아시아에서 단연 탑인 정동현 선수가 서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걸 보면 자랑스럽다는 최범근 선수의 목소리에 생기가 돈다. 정동현 국가대표 선수가 걸어간 길은 최범근 선수에게 탄탄한 이정표다. 회전이 주 종목인 최 선수가 이를 내일의 꿈, 아니 최 선수가 넘어설 미래의 꿈이다.



스포츠 톡



# 국제 탁구계의 메가 이벤트를 기다리며

##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난 3월 22일(일) 부산 벅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한국 탁구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이자 2020 도쿄올림픽대회의 전초전으로 전 세계 탁구인의 관심과 기대가 쏠렸다. 부산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탁구 영웅'으로 불렸던 유남규 감독과 '탁구 여왕'으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현정화 감독을 배출한 탁구 메카로 불렸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오매불망(寤寐不忘) 기다려온 선수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연습에 매진 중이다.

### 💡 핑~퐁! 매력 만점 탁구의 열기로 핫한 도시, 부산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476개의 민간 탁구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정기적으로 탁구를 즐기는 생활체육인도 1만 7,6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제탁구연맹(ITTF) 주최로 1926년부터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1957년부터 2년마다 개최했다. 홀수 해에는 남·녀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등 다섯 개 종목을 치르는 대회가 열린다. 남·녀단체전은 '세계단체탁구선수권대회'라는 이름으로 2000년부터 따로 치러지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 5월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총회에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부산시가 단독 후보로 나섰는데 회원국 만장일치로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은 세계 최강 중국을 위협하는 탁구 강국임에도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던 터라 이번 유치로 탁구인들의 숙원을 푼 셈이다. 부산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지역과 탁구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이미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도시로 각인시킬 좋은 기회였다. 단체전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79개국, 선수 537명을 비롯해 각국 탁구협회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 💡 성공적인 대회 개최 위해 다각적인 준비에 박차

애초 지난 3월 22일(일)부터 29일(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펼쳐질 예정이었다. 코로나19의 지역 전파가 현실화되면서 국제탁구연맹에서 공식적으로 대회 연기를 권고했고 조직위원회가 이를 수용했다. 국제탁구연맹은 코로나19로 하반기까지 모든 국제대회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야심차게 준비하던 탁구계 관계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진땀을 흘리는 중이다. 국제탁구연맹은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6월 21일(일)에서 28일(일)로 한 차례 개막을 미뤘다.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선수단과 임원, 탁구팬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회 연기가 불가피하지만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ITTF의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는 대회 개최 시점을 9월 말 정도로 보고 있다. 대회가 연말에 치러질 경우 벅스코 대관이 더 힘들어지고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벅스코도 대관 일정이 뻘뻘해 조울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 탁구 100년사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하던 탁구계 관계자들은 잦은 일정 변경에 힘이 빠진 상황, 50여 명의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대회를 치르지도 못하고 짐을 쌌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진천선수촌에서 퇴촌해 각자 소속팀에 돌아간 상황이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톱랭커가 참가하는 대회다. 국내 선수들은 최고 수준의 경기를 직접 경험, 관람하면서 경기력 향상을 꾀할 수 있고 100만 탁구 동호인들 역시 세계 톱랭커들의 경기를 관전하며 탁구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돼 빠른 시일 내에 부산에서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

### 마스코트 MASC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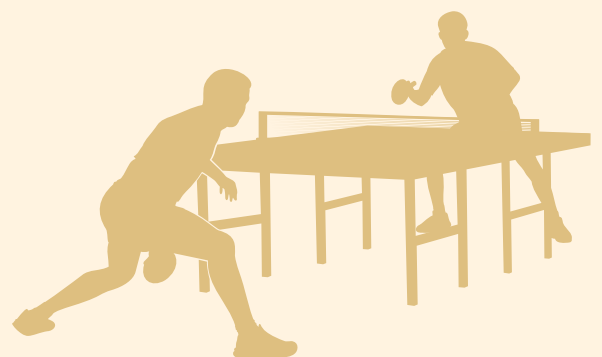
#### 아나 ANNA

탁구에서 공을 건네며 '자! 받아라!' 또는 '여기 있다'라는 뜻의 부산 사투리



#### 온나 ON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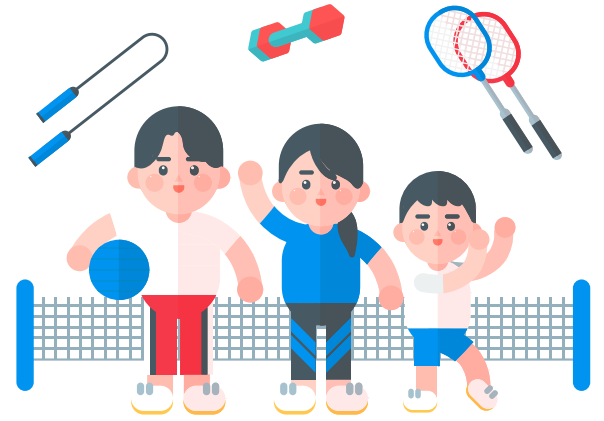
상대방의 공을 받아치며 '어서 오나라, 받아쳐줄게'라는 뜻의 부산 사투리



교육 톡 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거점, 지역스포츠클럽)의 정의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체육시설을 확보한 지자체, 체육관련 단체\*, 대학교, 체육중·고등학교)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의 스포츠클럽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2013년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0개소(20.3월 기준)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부산광역시에는 전문체육선수 육성을 우선하는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1개소와 생활체육을 우선으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역스포츠클럽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공공스포츠클럽은 회원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확인할 수 있는 자체 대회를 제공하며, 우수한 실력을 갖춘 회원에게는 외부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 가능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첫 번째(지역전문선수 육성)는 자체 전문체육선수를 육성하고 스포츠클럽명으로 선수등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선수 육성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에 지역의 우수 선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청소년 및 가족단위 참가 확대)는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30% 가량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수준 높은 종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가족 참가 프로그램 통해 전체 회원의 10%가 스포츠를 통한 가족 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치실현을 증대할 수 있다. 세 번째(자원봉사 문화 확산)는 공공스포츠클럽 회원의 자발성을 강조해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의 자원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끝으로(은퇴선수 일자리 창출) 공공스포츠클럽은 은퇴선수 중심으로 지도자 채용이 이루어져 지역 은퇴선수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산광역시에서 운영되는 공공스포츠 클럽 현황



거점 스포츠클럽 1개소 현황

지역	연번	클럽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부산	1	부산거점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 동래구 종합운동장로 35-6	47874	051-714-7330

지역 스포츠클럽 11개소 현황

시군구	연번	클럽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사상구	1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사상국민체육센터	47022	051-319-7380
서구	2	부산서구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121 송도스포츠센터	49269	051-250-7302
동래구	3	동래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 110 동래국민체육센터	47827	051-503-7612
해운대구	4	해운대구스포츠클럽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853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	8000	051-717-3445
북구	5	북구스포츠클럽	부산 북구 화명대로94번길 83	46534	051-365-7070
금정구	6	금정-부산외대스포츠클럽	부산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대 체육관 B동 220호	46234	051-518-6003
부산진구	7	부산진구스포츠클럽	부산 진구 진남로 328번길 35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	47312	051-710-7628
사하구	8	사하구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68	47312	051-202-3800
영도구	9	월계수 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북로21번길5 부산체육중고등학교	49118	051-400-3005
영도구	10	부산 영도구 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6 영도국민체육센터	49114	051-405-0050
중구	11	부산중구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 89 중구웰빙체육관	48905	051-465-6565

교육 톡 ②



#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 비리 신고하기



## 1 폭력/성희롱 · 성폭력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 바로 폭력과 성희롱·성폭력입니다. 폭력이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폭력이 선수 간 위계질서 유지의 기본일 수 없습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일 수도, 애정일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4 조직사유화



조직사유화,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여러 비리들 중에서 조직사유화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사유화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각종 비리도 하찮게 여기는 안일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안일함은 조직의 부패와 무능으로 이어지고, 결국 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과 같은 조직으로 변하게 합니다. 조직을 사유화 하는 일,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스포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2 승부조작/편파판정



내가 하면 의리이고, 남이 하면 비리입니까? 우리끼리니까, 아는 사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승부 조작과 편파판정은 이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스포츠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행위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종목마다 엄정한 룰이 있고, 스포츠맨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승부조작과 편파판정은 스포츠맨들의 이러한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범법행위입니다. 누가 저지르든, 승부조작과 편파판정은 의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 5 배임/횡령



나 하나쯤이야, 내가 누군데 이런 안일함이 스포츠계를 망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배임이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예산이나 물자들을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비리들 중의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특권의식이 우리 스포츠계 전체를 망쳐버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 공정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계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범죄입니다.

## 3 입시비리




입시비리, 유능한 다음 세대를 꺾어버리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유능한 어린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 우리 스포츠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시비리는 유능한 다음 세대의 꿈을 꺾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한순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내일을 이끌어갈 유능한 다음 세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다. 입시비리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 범죄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 신고 방법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 : 국번없이 1899-7675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온라인 신고 : 실명신고, 익명신고 이용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민원마당  
▶ 스포츠비리신고



## 부산체육의 발자취



다시 보는 부산체육 50년

### 사직벌에 올려 퍼진

# 의 필승 코리아



#### 01

##### 2002년 부산의 대도약

2002년 부산은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개항 이래 최대의 국제적인 종합 스포츠대회를 앞두고 도시 전체가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와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적인 종합 스포츠대회를 통해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제1의 항도를 넘어 세계의 문화와 경제를 잇는 동북아시아의 관문도시, 국제적인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의 입장에서 이들 국제대회의 연이은 개최가 갖는 의미는 각별했다. 1960~70년대 국가 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기에 넘쳤던 부산의 산업과 경제는 2000년대 초 6~7% 정도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국가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경제와 산업에 완전한 회생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종래에는 IMF 관리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부산은 오랜 동면(冬眠)에서 깨어나 다시금 힘찬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도시 전체에 넘실거리는 변화의 기운 속에서 부산은 대망의 2002년을 맞아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아시아경기대회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두 개의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에 온 역량을 집중했다. 부산은 이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부상했으며, 부산시는 2002년을 '부산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세계를 맞을 준비에 부심했다. 그 첫 단추는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였다.

#### 02

##### 부산, 월드컵축구대회 첫 승의 감격을 끌어안다

월드컵축구대회 본선 1승과 2라운드 토너먼트(16강) 진출은 축구계는 물론 온 국민의 열망이었고, 이는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를 기점으로 더욱 뜨겁게 분출됐다. 대표팀 또한 이 같은 거국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전 대회인 1998년 프랑스월드컵축구대회에서 네덜란드를 4강으로 이끈 세계적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는 등 월드컵 본선 첫 승과 16강 진출에 사활을 걸고 대회에 임했다. 월드컵축구대회 본선 첫 승의 꿈이 이뤄지고, 16강 진출의 염원이 가시화되자 한반도 전역은 온통 환희와 열광으로 들끓었다. 역사적인 월드컵 첫 승이 이뤄진 도시, 부산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부산역 앞 광장, 해운대해수욕장, 부산대학교 등 부산 지역 곳곳에 설치된 대형스크린 앞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붉은 티셔츠 차림의 응원단과 어울려 화면에 비치는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거친 호흡을 같이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 03

##### 세계 4강을 넘어선 부산의 승리

월드컵 본선 무대 첫 승의 봉인을 쓴 한국 국가대표축구팀은 폴란드 전 승리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미국전을 1대1 무승부로 돌파한 한국은 FIFA랭킹 세계 4위의 거함 포르투갈마저도 1대 0으로 침몰시키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이로써 한국대표팀은 1라운드 조별리그를 2승 1무로 마무리, D조 1위로 2라운드에 진출함으로써 마침내 온 국민의 숙원이었던 월드컵축구대회 16강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한국의 질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8강과 4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2대 1(연장전 골든골), 5대 3(승부차기)으로 격침함으로써 월드컵축구대회 4강 진출의 신화를 완성했다. 대회 기간 내내 보여준 부산의 높은 잠재력과 에너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선 확신은 부산이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해 거둔 가장 의미 있는 수확이었다. 올림픽대회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이미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대성공을 예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건강과 사람



봄맞이 활력 충전!

# 집에서도 간단하게 즐기는 맨손 운동

국민건강체조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출을 꺼리게 되는 요즘,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몸은 점점 찌뿌둥해지고 기분까지 처지는 느낌이 들곤 한다. 하지만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올해도 봄은 우리를 찾아왔다. 따듯해진 햇살 아래로 이미 꽃들이 만발하고 푸른 잎들도 생기를 띠고 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실내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보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 겨우내 뭉쳤던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고 이내 처졌던 기분까지 좋아질 것이다.

## 1 준비 운동 : 걷고 가볍게 뛰기

- 1 가볍고 경쾌하게 왼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
- 2 다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
- 3 정면을 보고 왼발을 가볍게 구부려서 발가락 앞쪽을 짚듯이 오른발과 함께 두 번 가볍게 뛰고 다시 발을 바꾸어 두 번 뛴다.



## 2 허리 운동 : 몸통 돌리기

- 1 두 다리를 벌리고 선 자세로 양팔을 머리 위에서 잡고 몸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게 돌려 한 바퀴 반을 돌려 왼발 앞까지 온다.
- 2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크게 돌려 오른발 앞까지 온다.



## 3 어깨운동 : 팔굽치기

- 1 왼쪽으로 몸을 틀고 앞 왼발은 구부리며 뒷 오른다리는 편다. 동시에 왼손은 가슴높이에서 주먹을 쥐고 오른 손바닥은 펴서 왼손의 주먹을 밀듯이 옆구리를 비틀면서 뒤를 본다.
- 2 양 팔굽을 옆구리에 붙이고 위로 올렸다가 양팔을 펴서 위로 크게 들고 양옆으로 내려 뒤에서 각지를 끼고 어깨를 뒤로 한껏 젖혀준다.
- 2 오른쪽으로 1, 2의 동작을 반복한다.



## 4 스트레스 운동 : 몸 비틀며 뛰기

- 1 왼쪽으로 몸을 트위스트 하면서 가볍게 4번 뛰며 이동한다. 두 발은 모아 앞, 뒤로 네 번 뛴다. 옆으로 이동할 때 양팔을 자연스럽게 비틀며 앞뒤로 이동할 때 양팔을 수평으로 편 상태로 왼팔부터 손끝이 귀 옆으로 가도록 구부리며 4번 반복한다.
- 2 같은 동작을 오른쪽으로 반복한다.

